

“한 자 한 자 ‘평화’의 서원 담아..”

천안 구룡사서 호국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1만여 불자 동참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한 호국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가 6월 14일 천안 구룡사(회주 도립)에서 봉행됐다. 구룡사 신도 1만여명은 이날 법회에서 2만여 권에 달하는 법화경 사경본을 봉안했다.

법화경 사경본이란 부처님의 말씀인 <법화경>을 직접 베껴 쓴 것을 말한다. 이날 법화경 사경은 관세음보살을 독송하며 불사리탑을 탑돌이 한 후 봉안됐다. 봉안된 사경본은 불자들이 쓴 사경집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간 모아온 것들이다.

이날 수월 스님(부산 수월선원 조실)은 법에서 “사람이 살다보면 누군가가 자신에서 나쁜 소리를 해서 고통을 주곤 하는데, 이것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법화행자”며, “법화행자라면 자기 공부하는 자기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인욕수행에는 사경이 적절한 수행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1만여 불자들은 작게는 나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 크게는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사경 봉안 직전까지 좌탁에 앉아 사경에 몰두했다.

김인선(54·경기 성남) 불자는 “1년 전 성지순례를 통해 구룡사에 방문했다가 사경이라는 것을 알게 돼 마음이 심란할 때, 집착이 생길 때마다 사경에 매달리곤 한다”며, “사경을 시작하면 이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잡스러운 생각 하나 들지 않을 뿐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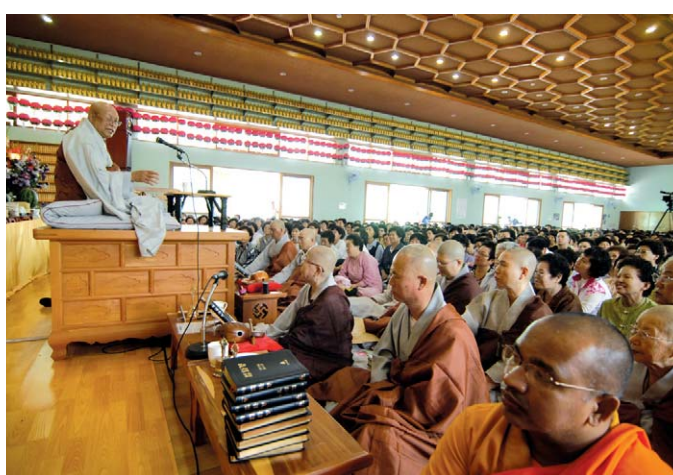
사경은 이렇듯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이다. 또한 한자 한자 사경을 할 때 마다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길라잡이이기도 하다.

법화경 사경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도립 스님(법화정사 세계대각법회회주)은 “앞으로 서예가들이 쓴 법화경을 돌에 새겨 후세에 남기기 위해 천안 구룡사 세계불교수도원에 비림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법화경은 말법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최고의 경전이니 열심히 사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구룡사는 입관과 정유제란이 일어났을 당시 스님들과 3만여 불자들이 항쟁하다 순국한 곳이다”며 “이 거룩한 자리에서 법화경을 수지·독송·사경하게 된 법화행자들의 불심으로 불법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공부의 정진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도립 스님은 8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에 진행될 ‘평화통일 불



6월 14일 천안 구룡사에서 열린 호국 사경대법회에서 법문하는 수월 스님.

사리탑 사경봉안대법회’에 참석해 법화경 사경의 세계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구룡사는 봉안식에 앞서 부처

님 진신사리 친견, 관세음보살보문품과 다라니품 수지 독송, 명부전·산신각 상량식 등도 함께 진행했다.

손효선 기자

부루나 존자를 찾아서 | 무심사 주지 지근 스님

“동자승들의 아버지예요”

“동자승들이 내가 없어도 묵묵히 버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괴산 무심사주지 지근에 동자승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5년전 이었다. 어떤 보살이 찾아와 동자승을 받아들 수 없나기에 지근 스님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 뒤로 한 두 명씩 받아들인 동자승만 무려 7명. 지근 스님은 “주민등록본을 발급 받을 때면 가족이 많아 한 장을 훌쩍 넘겨 버리곤 한다”며 웃어보였다. 친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스님 아빠의 이 포근한 미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있는 동자승 묘공(5), 묘성(8), 묘법(9), 묘각(12), 묘정(13), 묘덕(14), 묘선(15·행자) 모두 유치원과 학교 성적이 상위 10%안에 드는 우등생이다. 경제적 형편상 학원도 보내지 못한



물었더니 “큰 스님이요~”라고 우렁차게 대답한다.

무심사에서 이렇게 많은 동자승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지근 스님이 출가할 당시 ‘소외된 이 웃을 꼭 내가 보살펴 주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이다. 스님은 앞으로 동자승들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할 예정이다. 그 다짐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 동자

부모에게 버려진 동자승 7명과 함께 생활

“평생 소외이웃 보듬는 노력 계속할 것”

고, 과외도 못 받지만 스님이 사다주시는 문제집을 풀며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잘 하는 우등생 동자승들도 가끔은 스님 속을 찌질 때가 있다고 한다. 지근 스님은 “한번은 산신각 청소할 때 이 녀석들이 청소는 하지 않고 물장난을 해 오더러 일을 더 벌려 놔다”며 그날을 회상했다. 스님은 “동자승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는데 가족이나 상처를 안고 사는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역정을 내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며 “그렇지만 마음이 약해진다고 해서 아이들을 보듬어 주기만 하면 울바른 스님으로 자라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정으로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일까. 동자승들에서 꿈이 뭐냐고

승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 걸음은 오는 7월 1일 개관하는 노인들을 위한 ‘무지개 복지센터’다. 이곳에서는 노인재가지원, 단기보호, 주간보호 등이 이뤄진다. 즉, 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노인은 재가지원을, 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 노인은 단기보호와 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근 스님은 “복지도 서비스라고 여기고 행한다면 좀 더 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전국 최고의 노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는 강한 포부를 보였다. 복지센터에서 스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노인들에게 자비의 손을 드리울까.

손효선 기자

공주 동학사 첫 포살법회 봉행

성우 스님 포살 법사로

비구니 전문 강원 공주 동학사(주지 요병)는 6월 16일 대종결계 후 첫 번째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조계종에서 수행종풍 진작을 위해 하안거부터 전국의 각 교구본사 등에 포살 법회를 실시한 후 동학사에서 열린 첫 번째 법회다.

동학사는 그동안 보름마다 포살을 실시해왔으나, 이날은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법

회와 포살법회를 함께 봉행했다.

이날 포살법사로 나선 성우 스님은 “계를 범한 이는 참회토록 가르치려”는 구절이 담긴 사십팔경구제(四十八輕垢戒)를 설했다.

동학사 주지 요병 스님은 “중단의 대종 결계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포살이기에 외부에서 율사스님을 직접 모시고 포살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이번 포살법회를 근간으로 삼아 강사스님들이 포살법사가 돼 학인스님들의 포살을 지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청주불교방송 6대 사장에 현우 스님

운영위원 만장일치 선임

청주불교방송 제6대 사장에 현우 스님(법주사 총무국장)이 선임됐다.

청주불교방송은 6월 16일 열린 제30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신임사장에 현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현우 스님은 ▲남부권역의 난시청 해소 위한 중계소 설치에 위한 사업 ▲영상포교를 위한 준비 ▲생동



감 있는 뉴스 보도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협의하는 역할 등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우 스님은 1997년 법주사 교무국장, 1999년 고산사 주지, 2004년 중화사 주지를 역임하고, 2008년부터 법주사 총무국장 맡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천태종 발전 위한 초석되길”

청주 명장사 창립 36주년 기념법회 봉행



명장사 창립 36돌 법회에서 법문하는 도정 스님.

천태종 청주지부 명장사(주지 화산) 창립 36주년 기념 법회가 6월 18일 명장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도정 스님(천태종 총의회 의장), 경천 스님(천태종 사회부장), 경천 스님(광수사 주지), 정우택 충북 도지사, 이기

웅 충북 교육감, 남상우 청주 시장, 오제세 통합민주당 의원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36살이라는 나이는 인간으로 치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지금까지 천태종 종도와 청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지만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화산 스님은 개식사에서 “이 시대가 절실한 요구하고 있는 애국 불교, 대중 불교, 생활 불교가 우리 종단의 3대 지표다”며 “앞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도지사는 “명장사는 천태종의 근본 도량으로 많은 발전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종단 발전의 초석이 되고, 충북 발전의 중심이 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한편, 명장사는 창립법회에서 ‘종단의 발전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정우택 충북 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밖에 도 명장사 신도회 진천지회 지회장 이윤희 씨 외 6명에게 표창패를 각각 전달했다. 손효선 기자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전화: 서울 02)585-1141 / 부산 051)505-2434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측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인관리/명함관리/모뎀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낱말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 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 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전생·빙의·자기 최면·치료최면

개강일	2008년 7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1개월 주 2회 (총 8회) : 고급 속성반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교육비용	60만원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 지도자, 최면 관심자
교육내용	자기 최면/타인 최면/기억력, 집중력 증강 / 전생과 빙의/우울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 스트레스 / 수면장애 / 다이어트 / 금연 / 금주

◆특기 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 교육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 이용

진정 누가 당신을 능숙한 최면술사로 만들어 줄것인가? 수많은 교육생이 바글 거리는 교실에서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얼마 만큼의 교육 효과를 얻으시겠습니까? 수강비가 수백만원씩 해야만 고급교육일까요? 훌륭한 강사 입니까? 소수는 최면의 본질적 이고 체계적인 최면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최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쉽단 해동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 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해안 스님